

제1회 내셔널 소프트웨어 포럼(NSF) 참관기



권순욱,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1991년에 마크 와이저에 의해 최초로 제창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특징 지워졌다: 모든 디바이스는 네트워크에 연결 되어야 하며, 인간화된 인터페이스로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세계의 어디서나 컴퓨터의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사용자 상황(장소, 장치, ID, 시간, 온도, 날씨 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그는 컴퓨터의 진화 과정도 컴퓨터 기술과 인간과의 관계 변화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제 1세대는 1대의 고가 컴퓨터를 다수가 공유하는 메인프레임의 시대로, 제 2세대는 한 사람이 한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로, 그리고 제 3세대는 여러사람들이 주변에 내장된 다양한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시대로 정의하면서 유비쿼터스 혁명은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건설분야의 산학연관에서도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IT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과 건설기술의 융복합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도 u-city 관련 협약을 맺는 등 이종 산업 간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건설관리학회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u-Construction 및 건설자동화 관련 전문위원회 구성 및 타 학회와의 공동 워크숍 등을 통한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학회 조문영 회장을 비롯한 학회담당자들이 IT Service 학회와 지속적인 미팅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협력방안을 모색해왔으며 두 학회간의 그 첫 번째 공식행사로 정보통신부와 IT Service 학회등이 주최하고 한국건설관리학회를 포함한 소프트웨어(SW) 관련 모든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내셔

널 소프트웨어 포럼(NSF)' 행사에 학회차원에서 참여하게 되었다. 이하는 NSF 관련 내용이다.

이날 소프트웨어 주무부처인 정통부를 비롯해 총 33개 유관단체가 참여해 소프트웨어에 대해 논의 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전위에 서있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비롯해 한국전산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등 정부 유관 단체와 텔레매틱스산업협회, 콘텐츠산업협회, RFID/USN협회, 벤처기업협회 같은 업체 단체들이 참가했다. 특히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같은 국방·건설 등 소프트웨어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유관단체에서도 공동대회장을 맡으며 '대형 SW축제'에 동참했다.

정부는 다보스포럼처럼 NSF를 통해 정책, 기술, 시장, 인력 등 소프트웨어에 관한 모든 것을 매년 총 점검 할 계획이다. 첫 해인 올해는 △SW산업에 대한 국가발전 패러다임과 △산업발전 패러다임이라는 2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총 22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메가 트렌드를 주제로 펼쳐지는 오전에는 △디지털컨버전스 시대의 비즈니스 전략 △소프트웨어산업발전과 전자거래 △소프트웨어사업자 경쟁력 강화 전략 △IT서비스산업 신패러다임과 신규사업 전략 △유비쿼터스사회와 국가혁신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 및 효과 같은 6개의 세미나가 선보였다.

산업 및 기술 발전을 논하는 오후 세미나에는 △한미FTA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온라인소프트웨어 통상 현안 △소프트웨어 수출 경쟁력 방안 △IT서비스산업의 현재와 미래 같은 현안과 관련된 주제가 주로 다루졌다.

특히 오전에는 '한국경제 견인과 고도지식기반사회 창조를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주제로 2개의 기초연설이 각 10분씩 있으며, 이 주제를 가지고 석호의 KISDI 원장을 좌장으로 김동윤 정보과학회 회장, 김준경 KDI 부원장, 신재철 LG CNS 사장, 조현정 벤처기업협회장, 고현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등이 패널 토론을 벌였다.

정통부 등 주최 측은 이번 행사에 대해 "지난해 12월 SW산업



그림 1. “고도지식기반사회 창조를 위한 소프트웨어”,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전전략 보고대회를 기점으로 범정부 SW 관련단체 통합 세미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7월마다 SW 단체 통합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NSF를 통해 국가 전체의 SW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단체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NSF를 글로벌 행사(가칭 월드 소프트웨어 포럼·WSF)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데 본 행사를 매년 개최할 뿐 아니라 앞으로 세계적 행사로 발전시켜 한국을 명실공히 세계소프트웨어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각 세션별 발표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소프트웨어 통상현안: 국가 간 SW무역은 전달매체(Carrier Medium)에 의한 상품 무역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에 의한 서비스 거래가 존재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무역, 국제 전자상거래 등 SW무역 체계가 변하고 있다. 관세, 분류 체계 등 전통적 무역 규범은 더이상 SW분야에 맞지 않게 됐다. 특히, 다자체제인 WTO시대에 들어선 90년 대 말부터는 모든 것이 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해외국가와 맺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자국 SW 산업 해외 진출 돌파구로 활용하고 있다. 또 국가 간 통상 현안에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자 상거래’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우리나라도 WTO 전자상거래 등 SW 산업 개방 시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적극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또 현재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패키지 SW시장

보호를 위해 전략적 분류 및 규제 방향 설정이 필수적이다.

◇ IT서비스산업 신 패러다임과 신규사업 전략: 최근 IT서비스업계의 키워드는 △정보화 사업의 정당한 가치 인정 △신규사업 발굴 △품질력·생산성 제고 △세계시장 개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아우스싱, 유틸리티컴퓨팅, 웹서비스, 유비쿼터스 컴퓨팅 등의 서비스 이슈를 동반하고 있다.

공공SI 및 그룹지원 중심, 내수시장 집중, 주요기술 해외의존 등의 경향을 띠었던 IT서비스 산업은 신시장 개척, 해외시장 진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등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 같은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유비쿼터스 컴퓨팅, 전자태그(RFID), IT컨버전스, 웹서비스, 전자사키텍처(EA), u-시티, IT시스템관리(ITSM) 등이 신성장 육성 분야로 꼽히고 있다. 신시장 육성을 위해 △기업 경영전략과 IT서비스의 조화 △중소기업 대상 서비스 개발 △신기술 접목에 의한 서비스 다각화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초기 시장창출과 사업 다각화 등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사회와 국가혁신:한국은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세계 최고의 디지털기반을 이미 구축해놓고 있다. 이는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선진 국가경영을 실현 가능케해주는 도구다. 따라서 시스템화와 제도화가 상대적으로 훨씬 용이하다. 국가경영 선진화 기준의 대부분을 가장 빠르고 용이하게 구현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히 내년으로 20년이 되는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경영 선진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청와대 e지원 시스템 등 보이지않는 작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이 커다란 국가경영 선진화의 핵심 주춧돌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같은 기반하에 국가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생활의 선진화를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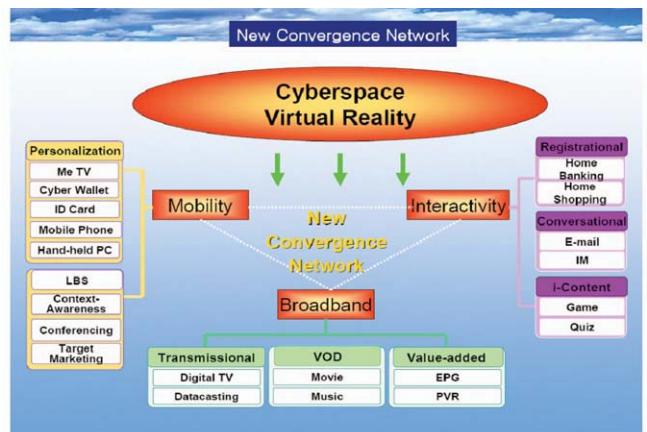


그림 2.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콘텐츠 비즈니스”, 최동진 (한국콘텐츠산업 연합회)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전략적 발굴과 확산이 필요한 때다.

◇임베디스 SW산업 현황과 발전방안:임베디스SW는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을 이끄는 첨병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앞으로의 한국 경제를 이끌 산업이다. 각 기업에서는 기술 선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미국, 유럽 등은 핵심분야 임베디스SW 개발에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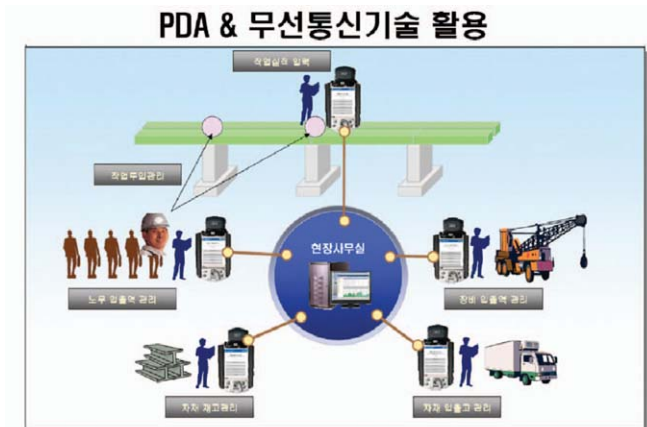


그림 3.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과 건설사업 활용방안”, 김경주(중앙대학교)

한국건설관리학회에서는 학회를 대표하여 중앙대학교 김경주 교수님이 산업 및 기술 발전 전략 세션에 참여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과 건설사업 활용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건설사업의 현황, 건설사업의 정보화 Framework, 건설정보화 추진사례, 건설정보화 최근 동향, 건설사업의 활용전략에 관하여 발표했다. 이번 학회의 다학제간 교류의 첫 행사인 NSF를 시작으로 두 학회가 계속 협력하여 향후 공동연구와 같이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교류할 수 있는 성공적인 학제간의 융복합사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